지역 소식통

김제시, 신설 · 전임법인 지방세 안내 책자 발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올해 상반기에 김제로 법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신설·전입법인에 '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정보(△2024년 주요 개정세법, △세목별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기업을 위한 감면제도) 뿐만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납세편의 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책자 부록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수출 지원사업 및 김제시 전입 혜택 내용을 담아 관내 법인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시는 이달까지 시청 세정과 사무실과 종합민원실,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신설·전입한 법인에도 분기별로 책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꿈드림 '꿈드림 밥상' 2차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 및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37명에게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급식지원사업 '꿈드림 밥상' 2차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꿈드림 밥상' 2차는 꿈드림 청소년단 정기회의에서 1차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이 선호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위주로 구성했다.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지원,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자립지원 서비스, 진로직업체험, 급식지원 서비스, 건강검진, 문화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3-545-01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수, 호우 피해 현장 진두지휘

운주면 · 화산면 등 순회… 봉사자 · 유관기관 · 공무원 격려하며 적극 대응 당부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현장을 돌며 피해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현장을 돌며 피해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완주군에는 7월 10일 오후 6시 기준 대둔산 204mm, 화산면 200mm 경천면 196mm 등 완주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89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유 군수는 11일 오전 농로가 유실된 비봉면 소농마을과 내월마을을 시작으로 화산면 화산교 교량 교각 피해 현장과 토사가 유입된 화산면 게이트볼장 피해 현장을 살피며 "계속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추가 유실과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천면 화암사 진입로와 운주면 원구제 진입로 유실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침수피해가 컸던 운주면 내촌지역을 방문하여 재난 복구를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율방재단 등 봉사자과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40여명의 노고도 치하했다.

특히 유 군수는 현장중심의 빠른 대응과 함께 피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들과 함께한 현장회의에서는 △운주면 내촌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정 추진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예산 편성 △전 직원 비상근무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논의되었다.

유 군수는 "자연재난을 막을 순 없지만 철저한 대비와 점검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낙석 등의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수해지역 현장점검… 긴급복구 '총력'

유의식 의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긴급 지원대책 마련 촉구

완주군의회가 11일 오전 7시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현장인 운주·화산·경천면을 긴급 방문해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11일 오전 7시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현장인 운주·화산·경천면을 긴급 방문해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완주군의회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 전원과 완주군 문성철 부군수, 안호영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도로 파손, 침수 및 토사유실 등의 재난상황과 주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 복구를 당부했다.

특히, 유의식 의장은 신속 조치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 재난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집행부 관계자에게 피해예방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완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장마가 예고되어 있고 선행 강수량이 많아 비가 조금만 와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산사태, 붕괴 우려 지역 등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의회, 호우피해 현장 긴급 방문 · 대책 마련 나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지역내 장마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10일 시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이 진행된 금구면 오봉리 일원은 최근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추후 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사전 방지를 위해 조속한 정비 시행을 요청했다.

서백현 의장은 "장마철 집중 호우에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추가 피해가 없게 집행부와 함께 대비를 강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지역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단은 4개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세탁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완주군, 공동세탁지원사업 추진

기업 근로자 작업복, 수거 · 세탁 ·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완주군이 지역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세탁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공동세탁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작업복 세탁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거·세탁·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단은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산학융합원, 완주군일자리센터 등 4개 기관이 전북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에이스터보 ㈜엘에이테크 ㈜대동철강 (유)대성하이텍 등 13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세탁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건강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은 "기업에서 바라는 사업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세탁지원사업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내달 9일까지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1일) 이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피해 보전직불금이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